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무용 상상표현 학습의 힘

신 은 경*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학습의 주요 개념

1. 상상과 표현

2. 인간행동과 상징적 기호화

3. 정신과 개념의 공간

III.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1. 두뇌와 생각언어 발달

2.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발달

3. 감정과 비판적 사고 발달

IV. 무용 상상표현 학습의 가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Power of dance imaginary expression learning as nonverbal communication

Shin, Eun-kyung · Ewha Womans University

Expanding autonomy and imagination of students become a crucial concept in dance education. In the centre of every class, which puts emphasis on various technique, free idea and boundless imagination, expects the result of individuality and originality at all tim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wer of imaginary expression learning and the appropriateness in activity of education specifically in this period of attempting harmonic development of emotion and reason as well as right brain and left brain. Therefore, it examines the core notion and signification of dance and suggests the evidence of the power of nonverbal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논문투고일: 2014. 4. 20. 심사일: 2014. 5. 20. 게재확정일: 2014. 6. 9.

communication. Furthermore, it explains the point of awareness, emotion, and capacity of kinetic sense, which all become a thinking method in dance, and reconfirms the position and the core notion of dance in the present age contemplating the range of the dance imaginary expression learning in dance as arts.

Consequently, dance imaginary expression learning embarks on the idea of creative inspiration to be accomplished critical thinking through sensitive language, thinking language and the process of action. It is essential for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Liberal Arts and Applied Arts and the effectiveness and its value are:

Firstly, imaginary expression is achieved through the experience universe as reflection of various experience. It goes through gradual stage of development and finally overcomes one's limitation.

Secondly, imaginary expression is further encouraged by on the basis of the symbolic function, which includes both verbal and nonverbal, and progresses from its systematisation and organisation.

Thirdly, imaginary expression as the means of nonverbal communication promotes the development of brain and thinking language, declarative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and sense and critical thinking. Therefore, as reason is assigned flexibility, energy, and vitality, students have a liberal mind.

This study promotes the understanding of effective transition of both connection and execution of one's imagination and expression in dance class.

key words: imaginary expression, nonverbal communication, dance learning

주요어: 상상표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무용학습

I . 서론

‘아는 것은 힘’이라고 말하며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Francis Bacon이 활동하던 17세기는 자연과학과 사유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수백 년 간 지속된 근대적 사유의 패러다임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이 문자매체에서 영상매체로 옮겨감에 따라 그 생명력이 희미해지는 듯하다. 이미 현 세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문자적 사유가 아니라 이미지적 사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기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이다(한수연, 2009:16 참조).

현 시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미래적 가치가 되고 있는 상상력은 마음속으로 여러 그림을 그리는 능력(power to make pictures in the mind)이고, 창조성은 그런 상상의 과정을 거쳐 독창적인 생각(one and only)을 떠올리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상력과 창조성은 무용

에서의 사고과정을 통해 새로운 무엇인가를 그려내고, 표현해내는 근원이 된다. 무용교육에서 상상표현은 상상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으로서 서로 다르거나 유사한 영역들의 연결이 창조적,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상상표현에서의 관건은 그러한 영역들의 연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술하고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들의 해결 열쇠는 전통적 전문성 교육이나 훈련이 아닌 예술이 가지고 있다. 예술로서 무용교육과정은 몸을 통해 상상력, 창의력, 탁월성, 비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적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비언어적 무용 훈련과 지식은 문화-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며 상상을 통한 창의적 인지력, 통찰력,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과 인식, 감정, 언어, 스타일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등을 배우고 경험하게 한다.

최근 비언어의 의식영역에 관심이 커지면서 기호체계로서의 무용 연구가 무용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무용은 역사적으로 교육과 종교, 윤리적 정체성, 사회-정치적인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비언어적 소통과 인식이론의 융합이 무용교육을 통한 소통과 지식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John Dewey(1934)와 Eliot Eisner(2002)의 이론은 이러한 해결을 위한 축진의 역할을 하였다. Dewey의 ‘다작 글쓰기(prolific writing)’와 ‘경험하면서 실천하는 학습(learning by doing)’은 무용교육의 가치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술을 직접적으로 향유된 소유물의 의미로 차있는 활동양식으로 규정하고, 춤과 노래 등 예술경험의 직접성과 맞물려있다고 하였다. Eisner는 인식의 결과로서 오는 상상에 친숙한 것을 섞어서 새로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형태나 콘셉트에 의해 다양하게 지각되는 경험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두 양상 사이에서 개인의 지식에 관한 표현의 목적은 상대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를 알리는 것이고, 그 수단엔 예술적 읽기와 쓰기형식에 의해 최고로 묘사되어 진다(Eisner, 1985:201 ; Rich, 1997:63). 이와 같이 어떠한 경험의 형식도 인지적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은 사고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감각, 지각, 인지는 환경과 생산적인 경험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개념구조로 이끈다.

그러나 Dewey와 Eisner의 이론만으로는 무용교육이 갖고 있는 무궁한 잠재성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환경의 특성을 구별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상상 속에서 조종 할 수 있다. 예술, 인류, 사회라는 상관관계의 지식으로부터 행동, 인식, 신경에 관한 과학적 인식들을 포퓰리즘(populism)이념

에 입각한 교육과정 내에서(Eisner, 2002:77-83) 다루려는 시도는 무용이 통합적인 지식활동으로서 사고의 방식과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오는데 도전적 쟁점이 되고 있다.

무용교육에 관한 지식의 키워드는 경험(Erlebnis)과 인식(Erkenntnis)이다. 경험은 목적이나 사건과 연결되거나 이들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이해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를 수행자가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인식은 관찰, 추론 과정들과 연계, 비교, 호소, 판단력과 같은 것에 기초한 서술과 해석에 대한 지식이다. 무용에서의 경험은 춤의 행위(즉흥, 안무, 공연)이고, 인식은 이론(역사, 비평, 분석 등)을 통찰하고 깨닫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혀있고 무용교육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다(신은경, 2012:38). 테크닉과 움직임의 관찰하고 의논하는 것, 수행하고 발표하는 것,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용학습과 관련된 그 자체를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상상의 경험과 인식의 결과로서 오는 표현활동이 가능해 지려면 이에 관한 주요 개념의 이해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감성과 이성, 우뇌와 좌뇌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는 이 시대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상상표현 학습의 힘과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용학습의 주요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무용의 효과와 상상표현 학습의 가치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무용에서의 사고방식이 되는 인식, 감정, 운동감각 능력에 대한 논점을 살펴보고, 예술로서 무용 상상표현 학습의 범위에 대해 탐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무용 수업에서의 상상과 표현의 효과적 과정과 수행에 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II . 무용학습의 주요 개념

1. 상상과 표현

예술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연결해 주며, 삶의 경험이나 감정의 상태를 표현한다. 창의성 교육의 전 단계인 상상은 자주 거론되는 말로써 무용학습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Richardson(1969)은 상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형태에 대한 투명성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ith(1990)

는 무용 수업에서 상상학습은 정서를 통제하는 심리적 기능뿐 아니라 동작을 기억하거나 특정한 동작을 위한 신체훈련, 무용수로부터의 특정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창작의 동기, 영감의 근원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상상에 의한 생각이나 느낌이 제스처, 움직임, 표정, 말, 글 등의 수단을 통해 표현으로 나타난 다는 것이다.

20C초 현대무용의 발전은 무용의 본질과 목적, 역사, 정신과의 관계, 표기법, 성, 정치, 그리고 무용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 박차를 가했다. 그 논쟁은 Margaret H' doubler로 하여금 무용을 상상과 창의적 움직임과 관련시켜 과학적인 구조 안에서의 경험으로 지도하도록 하였고, 각각의 학생들이 무용을 통해 창의적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의 지적, 신체적, 풍부한 감정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이끌어 주었다(E. Moore, 1976:12-17). 그 이후 대학의 무용이 체육교육에서 분리되기 시작하여 21C에 이르러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교육 현장에 무용이 하나의 예술교과로서 차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의학, 컴퓨터, 정보과학, 물리학 등의 학계에서도 자신의 학문을 설명하거나 그 원칙의 실험을 위해 연계 또는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상상을 통한 표현'이라는 무용의 특성이 있기에 앞으로의 무용교육은 상상의 다감각적 관념과 방법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움직임의 구조를 만들고 비언어적인 상징성을 표현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인간 행동과 상징적 기호화

인간의 행동은 의도적인 리듬,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목적의식 있는 비언어적인 움직임, 시간과 공간, 에포트에 의해 생겨난다. 무용은 고유성과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악과 의상과 소품과 함께한다. 그리고 목적은 감성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움직임을 개념화하고, 움직임 그 자체와 놀이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용은 통신을 위한 의도적인 의사소통으로써 무용수와 관객 사이의 지식공유에 의존한다. 무용수들은 다 감각적인 감정표현과 의미의 접근을 확대하며 춤을 만들고 서로 관계하며 사람들을 고무하고 이를 인식시킨다. 시간 공간 움직임 호흡 음악 등으로 무용수와 무용수, 무용수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인지하고, 운동감각 경험과 느낌, 신체움직임과 에너지의 공감을 체험하게 한다. 이 때 눈은 주의력과 각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상호작용의 관계를 조절, 변경하는 매개체로 작용된다(Leathers, 1986:42).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문자와 언어, 이미지나 동작을 통한 기호에 의존한다. 특

히 비언어적인 무용의 기호는 내용과 의미에 대한 표상이다. 기호는 인위적인 규칙으로서 어휘나 문법이 정확하게 작용하는데 반하여 상징은 제도적인 조건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적,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상징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국제적인 소통을 구성할 수 있는 체계로 나타난다. 상징화는 무의식의 정신적 표상을 의식적으로 끌어내는 정신과정으로 실제적인 자극 없이도 떠올릴 수 있는 대상 또는 행위를 말한다(김혜연, 2004:4). 무용에서의 상징화는 기본적인 의식 활동이며 사람들이 인식하고 은유적인 연결을 만들기 위해 감각과 감정, 관념이나 특질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영역이다.

무용은 상징과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메타포가 된다. 미적 상상은 실제적 개체 또는 내부적 표현에 대한 인식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상상력은 정교한 춤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것은 인지과정의 한 형태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그 정보를 유의미하게 만든다. 이것은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와 연결하고 결합하는 과정의 결과이다. 기호화가 안 되면 입수된 대부분의 정보는 일시적인 저장만 가능하게 된다. 기호화 전략으로는 시연, 심상, 기억법 등이 있다. 자극을 받아 표상을 떠올리는 신호가 되는 무용에서의 기호화는 시연, 매개, 심상, 기억 등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어떤 것을 움직임으로 생산하여 여기에 담긴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성 있게 외형적으로 형태화하는 구체적 언어인 것이다. 구체적 언어란 감각에 호소하는 시적언어이며 기호언어으로써 표의문자(ideographic)적 가치를 갖고 있다. 감각, 시, 기호 언어로서의 무용의 행위는 관념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총체적인 것이며 정신적 산물인 의지적 언어가 아니라 무용수 몸이 발화하는 기호로서의 언어이다(황훈성, 2006:37참조). 이 때 아이콘은 대체로 무엇인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한다. 춤의 의미를 기호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은유, 생각, 경험 또는 유사한 현상의 발현을 통해서이다. 춤에 의미를 덧입히기 위해 몸의 언어를 캡슐화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형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작동시키는 것과 같다.

3. 정신과 개념의 공간

정신공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구축되는 작은 개념적 꾸러미이다.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감각, 지각, 감정, 기억, 욕구, 여러 형태의 추론, 동기, 선택, 인격적 특색, 무의식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생각의 처리방법을 공식화하는 프레임에 의해 구조화된다. 이것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정신

공간과 관계하며 서로 사고와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공간은 사고와 언어의 동적인 사상을 모형화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하거나 말하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추리의 초점은 전제하고 있는 믿음과 분위기 등에 따라 하나의 정신공간으로부터 다른 정신공간으로 이동한다. 각각의 개별 공간은 논리에 맞는 표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성, 유일성, 변화, 유사성, 유추 그리고 실용주의적 기능들이 포함하고 있는 실천, 경험, 인식 등의 관계에 토대를 둔다.

Fauconnier & Turner(2009)는 정신 공간에는 최소한 네 개의 개념적 공간 즉, 입력 공간1, 입력 공간2, 총칭 공간, 혼성 공간이 있다고 한다. 입력 공간 1과 2의 사이에는 부분적인 체계적 대응관계를 말하는 공간횡단 사상이 존재하는데 자극에 의해서 환기된 개념들과 관련된 정보들의 공간이다. 총칭공간은 두 입력 공간에서 연결되어 쌍을 이룬 대응요소 사이에서 공유된 개념적 구조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혼성공간은 두 입력 공간에서의 선택적 투사에 의해 물려받아 포착된 구조가 새로운 공간으로 투사됨에 따라 유지하고 있던 부분적 구조에 새 발견 구조들을 추가하는 공간이다. 발견 구조라는 새로운 특징과 관계들의 출현에는 합성, 완성, 정교화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와 과정이 작용한다. 합성은 두 입력공간들로부터 투사된 요소들을 조립하여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고, 완성은 무의식적이고 노력이 필요 없는 배경지식을 보충하여 합성된 것을 더욱 풍부한 구조의 부분으로 만들고, 정교화는 합성되고 완성된 그 자체를 상상적으로 다룬다(박용혁, 2012:195-199 참조).

이렇듯 혼성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연결망은 분화된 정보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념에 총체적 통찰력과 새로운 의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서 상상의 중심에 개념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인간의 문화적, 생물학적 역사는 상상의 효과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요소가 되고, 무용 수업은 이를 추상적, 은유적 연결로서 구조화함으로써 역동적인 정신공간들을 창조하며 그 의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Ⅲ.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역사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써의 무용을 매혹적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지적한다. 진화론의 생물학자들은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서 인간의 동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인간은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응답한다. 인

식과 운동 시스템은 생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몸은 삶의 단서를 제공한다. 사람은 움직임을 통해 배우고, 움직임은 배우는 것을 촉진시킨다. 새로운 신경 경로와 시냅스(synapse) 형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운동 활동, 신체협응 활동 그리고 인식작용은 효율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야기한다.

신체행위, 감정의 표현, 얼굴의 표정, 자세, 목소리, 공간 등을 포함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은 비언어적 기호체계에 따라 신체활동과 관련한 동작학(kinesics theory), 공간과 관련한 근접학(proxemics), 접촉의 사용에 관한 접촉학(haptics theory), 음성사용에 관한 음성학(vocalics theory), 시간 사용과 관련한 시간학(chirognomic theory)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Burgoon, Guerrero, Floyd, 2009:5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호체계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의 경향이 있으며, 형상을 묘사하거나 상징화하는 유사성, 감정 표현이나 신호에 대한 보편성, 표정, 몸짓, 목소리 등 다른 기호들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동시성,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의 자발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관련하여 Harrison(1974)은 모든 표정과 제스처에 내포된 다양한 비언어적 기호체계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폭력의 수사법으로부터 무용의 수사법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현상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Stephen, 1996, 김홍규, 2001:111 재인용).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기능은 인간의 발달, 지식, 학습에 있다. 제스처나 이동움직임을 사용하여 접근, 접촉, 시선, 표정, 자세, 신체 외관, 냄새,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Dewey(1934)는 예술적 표현형식이 어떤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다른 언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안무가 Paul Taylor는 “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춤을 만든다. 시각매체는 말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나는 내 말을 항상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춤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최근 학제적 연구는 복잡한 의식을 춤으로 만들고 이를 인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상징 시스템으로써 Howard Gardner가 주장한 8가지 지능 중 신체운동감각의 지능은 춤을 통해 다양한 학습방법으로의 시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이러한 지능은 생각의 한 형태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리하여 무용의 창의적 과정에서 보여 지는 비언어적인 것들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무용수는 근육감각정보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데, 한 예로서 교사의 지시를 들으며 안무된 춤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쓰는 언어적 지능, 리듬을 작업하는데 추가 하고 빼는 등의 멀티 플레이 하게하는 음악적 지능, 무용을 움직임의 구성요소로 나누고 움직임을 수행하는 논리-수학적 지능, 다양한 방향에서 운동 이미지를 만드는 공간적 지능,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이해 지능,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대인관계지능, 움직임의 표현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자연탐구 지능을 들 수 있다(J. Lynne Hanna, 2008:495).

1. 두뇌와 생각 언어의 발달

구두 언어와 비언어인 춤은 둘 다 어휘와 문법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두 언어는 단어 순서를 배합하는 것이고 춤은 움직임의 순서(sequence)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춤은 수시로 시(poem) 이상으로 상징화되거나 찾기 힘든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산문의 틀을 넘어서 추상적으로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잡한 논리구조를 무용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용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듣고 보는 것을 통해 의미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는 중재, 분리, 생산, 패턴, 영향력, 잠재력, 관객의 범위까지 고려해야 한다.

움직임으로 춤을 제작하는 과정은 개념, 창의력, 기억과 같은 뇌의 구성요소가 작용한다. MRI를 사용하여 무용과 신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탱고를 추는 과정에서 뇌의 상호작용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즉, 언어의 생성 및 제어와 관련 있는 좌반구 전두엽의 브로카(Broca)영역 근처의 오른쪽 전두관개(frontal operculum)에 연속적인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Brown, Martinez & Parsons, 2006). 이것은 춤도 오른쪽 반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으로써 기본적 인식, 작업 공간 정보의 비언어적 처리, 음악, 감정적인 것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Coyle(2003)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을 낮추는 것에 퍼즐게임(38%), 악기연주(69%), 보드게임(74%), 스트레치와 춤(76%)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움직임을 기억하고 음악에 반응하여 파트너 또는 그룹으로 실행하는 인지활동이 발병률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비언어는 소리 없이 복잡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전한다. ‘뇌의 언어’, ‘생각 언어’로 정보의 표현, 관계의 표현 그리고 관계가 결합하는데 사용하고 조종되어 진다.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어린이가 뇌 유연성이 있어 다중처리를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ummins, 2003:63). 게다가 제2, 제3의 언어를 할 때는 모국어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뇌의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모국어만 하던 성인은 일정한 프레임 안에서만 뇌를 움직여 왔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클래식 발레 훈련만 한 무용수는 현대적 움직임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장점은 창의성과 세계관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언어 코드 즉, 언어와 비언어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

과 환상을 조직하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무용언어는 구두 언어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생각의 일부이며 생각의 도구이다. 또한 춤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생각할 수 있다. Lakoff와 Johnson(1999)은 개념에서 몸, 뇌, 그리고 세계의 경험이 나오고, 체현을 통해 개념은 그 의미를 얻는다고 하였다.

움직임이나 제스처의 이미지는 아날로그이지만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언어와 제스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식적이고 감정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는 무용은 정보를 전달할 때 생각, 정신,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력 과정에서의 무용수는 근육감각 정보 이상의 것을 체현하며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2.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발달

선언적 지식은 내용지식으로서 언어적으로 표상될 수 있는 사실과 개념들을 지칭하며 ‘~을 안다, ~을 이해한다’라고 표현된다. 절차적 지식은 과정지식으로서 선언적 지식과 맞물려 존재하며 ‘~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다. 즉 연결되어 있는 선언적 지식이 회상될 때 자동적으로 학습자는 행함을 통해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과제의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현재 중시되는 상상력, 창의성도 이 두 절차의 깊이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것은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은 관련사실을 인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용교육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지식(개념, 움직임, 역사, 용어, 규칙 등)을 얻는다. 학생들은 안무에 관한 지식과 움직임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선언적인 지식의 표현 방법을 배운다. 그것은 ‘아는 것이 실천이다’라는 지식으로서, 즉 몸의 지식으로 말하면 ‘아는 것이 몸의 표현’이라는 것이다(Bresler, 2004). 또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을 형상화 할 수 있다. 무용을 하면서 대화하고 느끼는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들은 움직임의 기술, 근육의 기억, 패턴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전략의 기술을 발달시킨다. 소통을 하기 위한 뉘앙스, 구별되는 춤, 행동에 근간하는 실행들은 절차적 지식에 의존한다. 암묵적 지식은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무용을 통한 움직임과 감정으로는 표현될 수 있다.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차이는 무용의 형태에 관해 학생들이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가? 명시적인 의미와 아이디어의 적절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의 차이이지 공연을 위한 기술은 아니다.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안에서 즉흥적인 움직임을 구성하고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매치시키는데, 이러한 규칙은 디지털을 강조하고, 분석 및 순차, 정보처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Stevens, Malloch, McKechnie(2005)은 안무적 인식은 복

잡한 미정의 현상으로써 근원적인 절차는 감추어져있고, 빠르고, 다모드적이며, 비선형이며 비언어적이기 때문에 무용은 경험과 탐사로 진화 한다고 하였다.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과 관련된 것은 인식과 행동의 관련성이다. 무용수와 안무가는 지식을 다르게 사용한다. 그것은 춤을 추고(경험), 그 춤을 보는 사람(인식)과 같다.

3. 감정과 비판적 사고의 발달

눈은 무용을 만들고 감상하는 인식 과정에서 중요한 감각적 역할을 한다. 물리학자 Albert Einstein은 사진을 통해 생각을 하고 근육과 신체 감각을 통해 상대성 이론의 발전을 구현화 하였다. 움직이는 이미지로서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무용은 지식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유연한 인지능력을 습득하도록 해준다. 이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가운데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또한 움직임의 이미지를 인지하는 능력은 관찰력을 발전시켜주고 이러한 일은 의학에도 영향을 미친다(McMahon, MEng, Kritek & Katz, 2006).

감성은 성공적인 춤과 교육에 필수적이다. 무용수는 배우는 사람과 과정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공연의 불안은 초보자와 프로를 불문하고 영향을 미친다. 연습을 통한 숙련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고,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고, 군무를 통해 지지받는 힘을 얻게 한다. 무용수들은 행위의 감정을 표현하고 컨트롤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무용은 무용수와 관객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게 하는 예술이자 엔터테인먼트이다. 무용수와 관객은 인체의 느낌과 명령을 감지할 수 있지만 상상력으로 마음이 동요되고, 움직임을 지시하고 감정을 느끼게 된다. 공연 중에 무용수는 이전의 개인적인 경험에서의 감정적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는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실제의 존재를 느끼기보다는 감정의 환상을 만드는 편이다. 무용학문에서 춤의 주요초점은 춤을 만드는 과정이며,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것이다. 감정의 구조적인 흐름은 학생들이 무용지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비판적인 생각과 배움의 기술을 얻는데 있어 어떤 주제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필수적인 것은 무용테크닉과 공연을 창의적으로 생산성 있게 하는 것, 생각과 감정과 움직임의 관점을 전달하는 춤을 만들고 분석하는 것이다. 춤을 만들고 춤의 감각들을 만드는 것은 상징을 추리하고, 이해하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지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아는 것을 요구한다.

IV. 무용 상상표현 학습의 가치

Marcel Duchamp의 작품인, 《샘》(1917)은 미술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미술에 대한 개념 자체에 혁신을 가져왔다. 미적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일상의 오브제가 작가의 선택과 기발한 상상을 통해 예술품으로 승격되고 주목받는다. 이러한 점은 무용교육에 있어 아이디어, 즉 발상과 상상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고 학교교육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상상력은 이성에 유연성과 힘, 그리고 활기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무용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무용교육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상상력(imagination)이란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영상을 만들거나 경험을 초월한 세계를 만드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미지 활동, 즉 어떤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일이다. Gaston Bachelard는 상상력이란 지각작용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 이미지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으로 애초에 주어진 이미지나 개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대상을 새롭게 변형시키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무용은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방식을 통해 알고, 시각, 청각 등의 감각경험에 의해 행동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감지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감각은 논리적인 사고가 따르는 밀도 높은 감성으로서 전파력도 강하다.

R. G. Collingwood는 『The Principles of Art』(1958)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계획이나 상상이 특정한 질료를 통해 형상화되는 것을 ‘체현(embodiment)’이라고 하였다.

다리를 세우겠다고 계획했던 생각을 콘크리트나 돌을 이용해 실제로 세우는 것, 예술가가 밤하늘을 보고 받은 인상을 종이에 선과 색을 이용해 그렸다면 그것은 체현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체현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가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상상되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창조가 되었다고 본다(한수연, 2009:15). 상상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지각하고 언어적, 비언어적경험을 상징기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K-12 무용 수업에서 다양한 상징적 방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상력을 밖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허승희(2002)는 상상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며, 상상력이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상상력이 어떤 상태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다는데 있다.

무용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경험하는데 강력한 힘이 된다. 상상력으로 시작되는 연습, 숙련, 소통의 무용은 체현하는 그 자체에 본질적 가치가 있다.

전문무용에서의 상상표현은 감정적이고, 신체적으로 도전적인 것으로 다른 변명이나 구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Kirov Academy의 Yelena Vinogradova는 안무가들은 비전과 상상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같은 타고난 재능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J. Lynne Hanna, 2008:497).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용을 만들고 창작하기까지 관심과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들에게 상상표현을 통해 정신적 자유와 상황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만들도록 도울 것이다.

교양무용에서의 상상표현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며 그것은 여러 학문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향이 있다. 수업과정은 공연보다는 무용을 창작하는 과정, 즉 안무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해결을 중시한다. 이 때 호기심, 상상력, 탐구, 토론, 반영 등의 자기표현과 평가의 개념에 초점지어 진다. 무용교육에서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다각적이고 다양한 모던댄스나 포크댄스 테크닉을 포함하고 있다. 춤은 연속적인 맥락을 지니고 전문적인 트레이닝과 다르게 사회의 한 부분으로 교육되어진다. 역사에서 교양예술, 사회예술은 문화·시대별로 춤의 속성을 탐구한다. 무용에서의 공통적 범위, 비판적 요소, 우수성 등을 인식하고 반응하며 판단할 때 춤은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에 있게 된다. 또한 움직임의 형태를 이룬 무용은 해부학과 과학, 생리학과 건강, 컴퓨터 과학, 물리학 등의 영역을 포함한 신체적인 예술이 된다. 무용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상징화하는 형태로 춤을 창작하는 과정 외에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것을 춤의 영역이 아닌 곳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응용무용에서의 상상표현은 다른 것들과 통합되는 소위 '적용과 융화'에 초점을 두지만 춤의 본질과 가치를 떨어트리지는 않는다. 다른 교과목과의 통합은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을 학교나 무용학원에서 무용에 대해 더 깊은 학습을 하게끔 유도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춤을 배운 학생들은 춤에는 여러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그들이 언어화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데리고 온다. 감정적인 표현력 이외에도 내구력, 유연성, 지구력을 기르게 하며 운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21세기 과학 기술시대에서의 무용수는 읽기, 쓰기, 추론하기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용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 오직 소수만이 전문 예술가로서의 직업을 열망하거나 권유를 받는다. 따라서 학생들이 예술의 가치를 알고 무용 커리어를 준비하도록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용을 보고 감상하는 것은 그 이상을 생각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Root Bernsteins(2005)은 생각의 도구는 초학문적인 것으로써 공통적인 생각 프로세스의 연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래의 학습을 준비하는 것(이전

의 접근방법을 보는 것, 쉬운 해설을 거절하는 것, 복잡한 질문을 하는 것 등)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얻도록 이끌어준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사의 무용 수업은 몸 지식을 깊이 체현하는 학습현장이 된다. 따라서 단순히 무용을 보고 토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고 만들고 무용역사를 이해하는 등의 다양한 무용수업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수학 언어 과학 등 다른 과목과의 통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학교와 교사의 관심, 부모 참여 및 재정적 자원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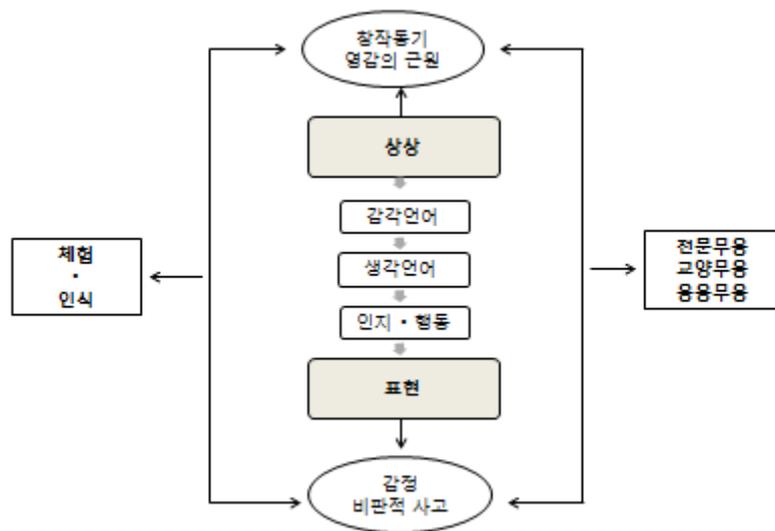


그림 1. 상상표현 학습의 범위

V. 결론

학생들의 자율성과 상상력 신장은 무용교육에 있어서 주요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다양한 기법, 자유로운 발상, 무한한 상상력을 중시하는 모든 수업의 중심에는 항상 개성과 독창성 있는 결과가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용을 기본교과로 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과 내면의 이야기를 통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상상표현에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한수연, 2009:134 참조), 무용을 재미있고 친근한 것으로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 시대에서의 무용의 위치, 주요개념과 의미, 가치 및 효과 등을 재확인하

고, 학교 교육과정의 예술교과 내에 무용이 들어가야 할 당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상표현은 다양한 경험의 창조적 반영으로서 경험세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상표현은 점진적 단계를 거쳐 발전되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그려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학생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상상세계의 소재가 될 뿐 아니라 책, TV, 만화 등에서 봤던 내용들도 소재가 된다. 상상 세계의 풍부와 빈곤의 여부는 다양한 경험 수준과 범위에 달려있다.

둘째, 상상표현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것 둘 다를 포함하는 상징기능을 토대로 힘을 얻게 되고 이를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한다. 인간행동과 상징적 기호체계, 정신과 개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은 보고 듣는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내면의 세계를 가지게 한다. 무용 수업에서 학생들은 환경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얻으며 새로운 자신을 만들게 된다.

셋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써 상상표현학습은 두뇌와 생각언어,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감정과 비판적 사고의 발달을 꾀하며 전문무용, 교양무용, 응용무용을 막론하고 이성에 유연성, 힘, 활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춤으로 자신만의 무엇을 내면화하도록 이끌어 호기심과 새로움으로 가득 찬 무용시간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때 표상의 소재가 되는 경험은 그 때 그 때의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서 활성화되고 머릿속에서 재현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각된 인식은 분해되어 새롭게 통합되거나 새로운 맥락에 잘 흡수 되도록 계속적으로 수정, 발전된다.

이상과 같이 상상표현을 통해 감정과 이미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장치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작용이자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상상을 통해 춤을 만들며 추상적인 개념들을 창의적으로 구상할 때, 그들은 초월적, 미적,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지적인 자신을 탐험하게 된다. Stevens and McKechnie(2005)이 “암묵적이지만 소통적인 무용은 행동과 제스처와 이동, 여러 코드와 양식들, 인간의 경험과 감정에 의해 풍부해진 에피소드들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전달하는 배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강력한 힘을 지닌 무용은 상상에서 출발하여 감각언어, 생각의 수단, 경험의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창의적 표현이자 무용지식임을 알리며 후속으로 학생들의 감성과 이성에 상상의 씨앗을 뿌리는 상상표현 학습프로그램이 다른 학문분야와의 접점에서 소통하며 개발되고 실행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혜연(2004), “미술치료를 통한 상징화 능력의 발달이 자아 강화에 미치는 효과; 자아심리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 김해경(2000), “인지과학·미술교육에 대한 견해 비교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김홍규(2001),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 나남.
- 박용혁(2012), “상상표현에서의 개념적 혼성”,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 23권1호**, 193-212.
- 신은경(2012), “스펙트럼 이론을 적용한 무용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1호**, 23-39.
- 허승희(2002), **아동의 상상력 발달**, 학지사.
- 한수연(2009), “초등 미술교과에서 상상표현 지도를 위한 오브제 활용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황훈성(2006), “동시대 무대에서 몸 기호화하기 (mise-en-scène): 미국 페미니스트 극 무대를 중심으로”, 한국아메리카학회, **美國學論集 38권 2호**, 255-274.
- Bresler, L. (Ed), (2004), *Knowing bodies, moving minds: Towards embodied teaching and learning*, Boston: Kluwer Academic.
- Brown, S., Martinez, M. J. & Parsons, L. M. (2006), “The neural basis of human dance”, *Cerebral Cortex*, 16(8), 1157-1167.
- Burgoon, J. K., Guerrero, L. K. & Floyd, K. (2009), *Nonverbal communication*, New York: Allyn & Bacon.
- Coyle, J. T. (2003), Use it or lose it. “Do effortful mental activities protect against dementi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8(25), 2489-2490.
- Cummins, J. (2003), “Bilingual education: Basic principles”, *Multilingual Matters*, no.123, 56-66.
- Foshay, A. W. (2000), *The curriculum: Purpose, substance, practice*(Foreword by O. L. Davis Jr.), New York: Teachers College.
- J. Lynne Hanna (2008), “A Nonverbal Language for Imagining and Learning: Dance Education in K-12 Curriculum”, *Educational Researcher* vol. 37 no. 8, 491-506.
- Leathers, D. (1986), *Successful nonverbal communic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New York: Macmillan.
- McMahon, G. T., MEng, O. M., Kritek, P. A. & Katz, J. T. (2006), “Effect of a physical examination teaching program on the behavior of medical resident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0(8), 710-174.
- Moore, E. (1976), “A recollection of Margaret H'Doubler's class procedure: An environment for the learning of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8(1), 12-17.
- R. G. Collingwood, *Art experience activity, imagination and expression, understanding*, 김혜련(역, 1996), **상상과 표현: 예술의 철학적 원리**, 고려원.
- Richardson, A. (1969), *Mental imagery*, London: Roudedge and Kegan Paul.
- Smith, K. L. (1990), “Dance and imager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Feb. 17.
- Stevens, C. & McKechnie, S. (2005), “Thinking in action: Thought made visible in contemporary dance”, *Cognitive Processing*, 6(4), 243-252.